

웃고 기뻐하면 암도 낮고 무슨 병도 다 나아

사람의 주인은 마음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고 20년간 이 사람이 외치고 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알고 바로 말하는 것이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물에 대한 실체를 왜곡해서 돌을 흙이라고 하고 신을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지존자라는 것은 하나님인 고로 사람더러 신이라고 하였고 또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신이 아니라면 성경이 잘못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람은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과학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이 영이라고 하였는데 영은 곧 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신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주인이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제단에 나오고 싶으니까 나온 것이지, 나오기 싫는데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좋으니까 따라온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주인은 마음인 것입니다.

구세주, 생미르불, 정도령은 한 사람

이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에 왜 학문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전부 신이요, 하나님의 자식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의 자식인데 오늘날 학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이 부처님이야, 부처님의 자식이 사람이야? 부처님이요? 그러므로 불경에는 이제그대로 사람더러 전부 부처님 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이나 부처님 되라는 것이지, 부처님 자식도 아닌 돼지 자식을 부처님 되라고 하겠어요? 돼지 새끼가 부처님 될 수가 있어요? 부처님 자식이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나는 성불하지 못했다. 나더러 성불했다고 하는 제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하고 말한 것이 열반경에 쓰

어 있는데 석가모니 선생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나는 성불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생미르불이 나타나면 나도 그 생미르불한테 가서 성불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열반경에 쓰여 있는데, 열반경은 석가모니가 죽기 직전에 한 시간 반 동안 설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석가모니 선생이 그와 같이 말하면서 “앞으로 생미르불이 나타나면 불자들은 생명을 걸고 생미르불을 따르고, 생명을 걸고 생미르불을 보호하라.”는 말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미르불이 나타나면 생미르불은 불교식으로 설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식으로 설법을 하는 고로 불자들이 땀 흘려서 듣는다.”는 말도 했는데 이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인 고로 성경 위주로 말씀을 하나기 불자들이 알아듣기 힘들다는 것을 비유해서 한 말인 것입니다.

감로를 내리는 자가 생미르불이라고 했습니다. 열반경 5권에 “여기에는 죽음이 없다! 여기는 감로가 내리는데, 감로를 내리는 자가 바로 해탈자다.”라고 쓰여 있는데 해탈자가 바로 생미르불이요, 감로를 내리는 자가 생미르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로를 내리는 자가 생미르불이라고 불경에 쓰여 있는가 하면 격암유록에서는 생미르불이나, 정도령이나, 구세주나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도령도 감로를 내리고 구세주도 감로이슬성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로가 내리면 사람의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성불하게 된다고 석가모니 선생이 말했던 것입니다.

욕심의 뿌리가 나라는 의식

이 세상에는 “알아야 면장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면장’이라는 말을 시골 면장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면장이라는 것은 면할 면(免)자에 장제(葬)자인 고로 알아야 안 죽는다는 의미인데,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죽지 않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



구세주 조희성님

생학은 구세주이면서 생미르불이신 정도령이 가르쳐주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걸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꾸며서 가르쳐줄 수는 있겠지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참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영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결국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죄를 안 지을 텐데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죄가 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안 짓는 방법을 알아야 선생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스님도 죄가 뭔 줄 알아야 진짜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라고 하였는데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고로 욕심의 뿌리가 바로 나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나라는 의식이 존재도 없이 사라져야 도통을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려라.”라고 쓰여 있는데, 나를 왜 버려라고 했느냐 하면 나라는 게 죄니까

버려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죄는 마귀 종”이라고 쓰여 있는데 마귀 종이 마귀인 고로 나라는 의식이 죄라는 건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마귀가 뭐냐 하면 사람 죽이는 사자마귀에요. 사자마귀가 나를 죽이는 걸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체하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체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피가 썩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욕심만 부리면 피가 썩습니다. 욕심부리는 순간 피가 썩고 그 썩은 피로 인해 머리 카락과 같이 가느다란 혈관이 전부 막혀 버려요.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위액이 전달도 안 되고 위장을 돌려주는 에너지가 전달도 안 되니까 위가 돌아가다가 스톱되고 뒤틀리는 위경련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위경련 상태가 일어나면 배가 아파서 펄펄 뛰게 됩니다.

위경련이 혈관이 막혀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의사들도 모르고 침놓은 사람들도 모릅니다. 다만 침놓는 사람들이 사관을 따기만 하면 트림이 나오면서 소화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침 놓는 사람들도

왜 소화화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 해가지고 온 몸 저 발끝, 손끝까지 피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혈관이 막히면 막힌 뒤쪽은 피가 유통이 안 되고,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가 진공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진공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압축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관을 침으로 구멍을 내면 ‘뽕’하고 시켜면 썩은 피가 손가락 끄트머리에서 나오면서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입니다. 침놓는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무조건 침만 놓으면 소화화가 되니까, 침을 놓을 뿐입니다. 의사가 이걸 모르니까 환자를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엔돌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욕심만 부리면 피가 썩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는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나라는 의식이 마귀니까 나라는 의식이 무슨 생각을 해도 피가 썩습니다. 고아원에 쌀을 100가마 갖다주려는 생각을 해도 피가 썩어요. “왜, 좋은 일을 하는데 피가 썩을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무슨 생각을 해도 피가 썩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해도 피가 썩으니까 사람이 백년 가까이 살면 다 죽는 것입니다. 왜 죽느냐 하면 피가 썩어서 죽는 것입니다.

간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와 같이 세포로 형성되어 있는 장기들의 수명이 있으면 제일 긴 세포가 28일입니다. 28일만 되면 세포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요. 여러 분들 매일 목욕을 하고 때를 밀어도 때가 죽은 세포가 털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비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비물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밀면 때가 돼서 밀리는 것입니다.

더러운 먼지 같은 것이 묻어서 때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먼지가 끼겠어요. 죽은 세

포가 사람 털구멍을 통해서 피부로 밀려나와 때가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치가 맞죠? 간세포 같은 것은 한 시간 밖에 못 살아요. 한 시간마다 간세포가 죽어서 분비물이 되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뭐로 만들어지냐 하면, 안 썩은 피로 만들어집니다. 간세포도 만들어지고 피부세포도 만들어지고 심장세포도 만들어지고 위장세포도 만들어지고 대장세포도 만들어지고 신장세포도 만들어지고 방광세포도 만들어지고 항문세포도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몸속에 모든 세포가 쉴 사이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이걸 모르고 있죠?

사람의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람의 핏속에는 생명자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인 고로 그 생명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지탱해줘요. 이 피라는 것이 생명자를 들어줄 때에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사람이 기뻐하거나 영생의 확신의 마음을 가지면 생명자가 자꾸 생겨요. 생명자가 생길 때 나오는 분비물을 가지고 엔돌핀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이상구 박사가 한국에 와서 방송할 때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했는데 엔돌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죠? 생명자가 늘어날 때 숫자가 늘어났으면 나오는 분비물이 바로 엔돌핀이라는 물질이예요. 엔돌핀이 자주 나오면 엔돌핀이 T림파구가 되어가지고 이 T림파구가 병균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주 깔깔대고 웃고 기뻐하면 암도 낮고 거예요. 웃으면 무슨 병도 다 낫는 거죠? 의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 사람은 모든 중생들을 살리려 온 사람이나 바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바른 말을 해서 중생들이 죽지 않게 해주어야 돼, 죽게 해야 돼? 죽지 않게 해주어야죠? 매일 웃으면 웃을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13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욱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3)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다

사해 남쪽의 세일산 주변에 거하는 에돔 사람들은 예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의 왕은 에돔의 셀라(Sela), 페트라에서 이스라엘의 6만 명의 정예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 그는 두어 달 전 모세의 사신에게 “그의 형제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돔왕은 모세의 군대가 이토록 강하고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몰살당할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증으로 주었음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돔왕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서의 자손과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나 모세는 세일산을 넘어 가나안으로 진격하려던 계획을 접고, 세일산의 에돔을 우회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험난한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외 회중을 이끌고 호르산에서 돌이켜 흥해길로 내려갔습니. 페트라의 호르산에서 라스안나 크브(Rais an Naqb)를 경유하여 와디룸(Wadi Rum)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런 거친 벌판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같은 만나를 먹고 지내는 것도 이제 지극지극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목에 넘여가지도 않습니다.”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3)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민수기 21장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범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가라앉기는커녕 하나님

과 모세에 대한 욕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때다!’ 싶어, 사막의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물게 하였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불뱀이 기어오르니 마

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은 사라지지 않고 닳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가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과 당신께 불평을 말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여 저 불뱀을 없애버려 주십시오.”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리를 용광로

에 넣어 녹인 쇳물로 주조(鑄造)한 뱀을 장대 끝에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불뱀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그 구리뱀을 보고 다

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안젤라

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때에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인류를 전멸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들에 물려죽게 된 것도 마귀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은 ‘인간이 범죄할 적마다 마귀가 틈을 탄다’는 하나의 실례(實例)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공격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매달게 하여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정된 구원의 설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구세주 하나님’으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이 구세주의 얼굴을 쳐다보면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성령)으로 거듭나 영생한다는 표징이 바로 모세 때의 구리뱀이었습니다.

1. 구리뱀(a serpent of bronze): 승